

#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건호<sup>1\*</sup>, 심혜숙<sup>2</sup>

<sup>1</sup>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sup>2</sup>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 The influence of maternal family-of-origin experiences :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value of children

Shin, Gun Ho<sup>1\*</sup>, Shim, Hye Sook<sup>2</sup>

<sup>1</sup>Professo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sup>2</sup>Ph. D. Student,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a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만3세-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47명을 대상으로 원가족 경험, 양육태도, 자녀가치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원가족 경험은 자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어머니의 자녀가치 역시 양육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원가족 경험은 양육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가치는 원가족 경험과 양육태도 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녀가치를 갖게되고, 자녀가치는 곧 양육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긍정적 자녀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공동양육자인 아버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주제어 : 원가족 경험, 양육태도, 자녀가치, 정서적 자녀가치, 사회적 자녀가치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mediated effect of value of children with a purpose of examining the influence of maternal family-of-origin. A group of 247 mothers having young children in the age of 3 to 5 years participated in a survey which is consisted of the scale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parenting attitude and value of children. The study results show four aspects: First, family-of-origin experiences have positive effect on value of children. Second, maternal value of children also appears to be positive on parenting attitude. Third, family-of-origin experiences have positive effect on parenting attitude. Lastly, value of children shows mediated effect between family-of-origin experience and parenting attitude. In other words, having high level of positive awareness in family-of-origin experiences brings positive value of children, and the value of children brings positive effect on parenting attitude. Therefore, multilateral measures and methodical supports are needed to develop positive value of children, and consideration on father is required as a joint partner of rearing children.

**Key Words** : Family-of-origin experiences, Parenting attitude, Value of children, Emotional value of children, Social value of children

\*Corresponding Author : Shin, Gun Ho(khshin@kangnam.ac.kr)

Received October 18,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December 6,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 I. 서론

최근의 현대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산업화를 지나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국가간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들의 삶의 형태까지도 바꾸어놓고 있다. 특히 단기간동안에 산업화를 이룬 한국사회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형태의 변형뿐 아니라 혈연과 운명공동체적인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마저 변화시켰다. 생산이나 교육과 같은 가족의 1차적 기능들은 가족단위에서 개인과 여러 사회기관으로 이전되는 등 그 기능이 축소되거나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많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에 있어 어떤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켰다. 특히 자녀양육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사회적 기대와 자신의 신념과 목표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다[2].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주의 가치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자녀의 성공은 곧 부모의 성공으로 평가되어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많은 사회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3-5].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 어머니들은 자녀의 소소한 문제까지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 등장한 ‘헬리콥터 부모’나 ‘잔디깎기 부모’와 같은 신조어들은 현 시대 부모들의 양육행동을 단편적으로 말하고 있다. 자녀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못하고 작은 일조차도 부모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을 뜻하는 이러한 신조어들은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얼마나 열성적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들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악화되고 간극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6,7].

부모와 자녀, 특히 자녀를 주로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지적 발달뿐 아니라 인성과 성격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긍정적 관계는 안정애착을 통한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한다.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가진 자녀들은 타인에게 너그럽고 공감하며 우호적인 인간 관계를 맺는다[8]. 즉 자녀들은 부모와

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며 이를 확장하여 더 넓은 인간관계를 맺는다[9].

유아기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생존을 위하여 부모의 태도와는 관계없이 부모와 관계를 맺기 위해 애를 쓴다. 유아들은 자신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뿐 아니라 거부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태도 역시 오롯이 겪으며 성장한다[10-13].

그렇다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모의 원가족 경험에서 찾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정서·심리적 시작이 된 원가족 내에서 신체적, 심리적 자율성이나 정서적 유대관계를 경험하며 성장한다[14]. 이러한 원가족 경험은 개인에게 내재되어 삶을 살아가는 태도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15]. 부모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부모들은 원가족 부모로부터 받았던 양육의 경험이나 교육 등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배워가고 감당해 간다. 그러나 부모됨의 준비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 방법을 자신의 원가족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6].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자녀 가치를 들 수 있다[5,17-19]. 가치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고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자녀가치 역시 자신이 경험한 원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으로 전이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용은[20]은 자녀가치가 세대간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가족의 양육경험이 자녀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1-24]와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에는 원가족 경험이 중요한 요인이며 원가족 경험을 통하여 전이된 자녀가치 역시 양육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양육태도에 미치는 원가족 경험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전생애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원가족 경험과 원가족 경험을 통하여 내면화되는 자녀가치, 자녀가치의 인식에 따른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예측변인으로 원가족의 경험과 자녀가치

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 양육태도 간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 원가족 경험과 양육태도간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은 자녀가치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양육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은 양육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원가족 경험과 양육태도  
간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원가족 경험

원가족이란 개인이 출생하여 성장한 가족으로 개인의 신체·정서·심리적 시작이 된 가족을 말한다[14]. 최근 원가족 경험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원가족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원가족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25-27]. 즉, 어머니 양육태도의 근간은 원가족 경험이며, 원가족 경험은 다시 자녀를 양육할 때 투영되어 가족 내 경험이 세대간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28]. 이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내적작동모델이 원가족 경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전생애적 관점을 이야기한 이혜승[2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원가족 경험은 어머니의 자녀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미라 외[24]는 원가족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수용적이고 독립성을 조장하는 긍정적 양육경험을 한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원가족 부모와의 긍정적인 경험이 부모됨의 중요성과 가치로움을 알게 하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양

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30,31]

최현미[32]는 한국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가족 경험의 측정 변인을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과 갈등해소, 분리와 상실의 수용,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허용성, 가족의 화목, 확대 가족내에서의 독립성, 공동체 의식 및 가족의 공평성 등 8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 요인들은 개인이 자신이 경험한 원가족의 건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는 요인들 중 원가족 경험을 지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원가족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다[33-35].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은 원가족의 분위기가 서로 정겹고 가족 구성원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원가족 경험을 원가족의 전반적 건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 2.2 양육태도

양육태도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부모의 지속적인 태도와 행동특성이다[36]. 양육태도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들은 양육태도와 관련된 공통된 요인으로 '애정'과 '통제'라는 두 가지 개념을 주요하게 다루어왔다[37-39]. 애정과 통제는 자녀양육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요소이다.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를 수용하고 관심을 가지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이며,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한 규제나 부모의 독재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양육태도는 애정과 통제가 과도하게 한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결여될 때 과보호나 방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40].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영아의 정서기능과 정서조절능력 등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10,11],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되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부정적 양육태도는 유아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하였다[12]. 이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령기 자녀들과 대학생 자녀들의 성취목표지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쳐 학업성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9,13].

## 2.3 자녀가치

자녀가치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개인적인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를 가짐으로 생기는 손실과 이득에 관한 것이다[20]. 권용은[20]은 자녀가치의 하위요인으로 노후준비와 같은 도구적 가치, 대를 잇는 등의 사회적 가치, 자녀를 통한 즐거움과 같은 정서적 가치를 확인하였다. 자녀가치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데, 한국의 경우 특이하게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가 높은 양면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부모됨의 기쁨을 갖게 하고 사회적 지위 상승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부모의 자유나 경제활동을 제한시키고 경제적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3,4,41].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달라진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자녀가치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상실과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지고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부모가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상승하여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8].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4곳을 선정하여 기관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어머니는 총 294명이었으나 이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47명을 제외하고 최종 연구대상자를 247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연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은 만3세가 45명(18.2%), 만4세가 66명(26.7%), 만5세가 136명(55.1%)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2명(68%)이 가장 많았다. 가족의 형태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90.3%였으며 맞벌이 부모가 40.1%,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가 59.9%로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았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Categories	n	%
Age	21-30	1	.4
	31-40	113	45.7
	41-50	132	53.4
	>51	1	.4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9	7.7
	Associate	30	12.1
	Bachelor	135	54.7
	Master	63	25.5
Job	Professional	53	21.5
	Management	104	42.1
	Office work	28	11.3
	production worker	5	2.0
	Manual labor	2	.8
	Engineer	15	6.1
	Service	8	3.2
	etc	32	13.0
	Household income (10,000won)	200<	5
200-300		13	5.3
300-400		51	20.6
400-500		49	19.8
<500		129	52.2
Working couple	Yes	99	40.1
	No	148	59.9
Number of Children	1	52	21.1
	2	168	68.0
	3	25	10.1
	4	2	.8
Family type	A nuclear family	223	90.3
	Extended family	19	7.7
	Dispersed family	4	1.6
	etc	1	.4
Birth Order	First	96	38.9
	Second	83	33.6
	Third	34	13.8
	Fourth or more	34	13.8
Family-of-Origin type	A nuclear family	177	71.7
	Extended family	62	25.1
	A single-parent family	4	1.6
	Dispersed family	4	1.6
Economic status of the family-of-origin	Low	47	19.0
	Average	147	59.5
	Hihg	53	21.5

### 3.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 자녀가치,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자녀수,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수준, 직업, 맞벌이 유무, 가족형태를 살펴보고, 원가족 변인으로는 출생순위, 가족형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을 포함하였다.

### 3.2.1 원가족 경험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Hovestadt 등[14]이 제작한 원가족 척도(Family of Origin Scale: FOS)를 기초로 우리나라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최현미[32]의 원가족 건강성 척도(FOS-55) 중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 경험을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의 Cronbach  $\alpha$ 는 .91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원가족 건강성의 Cronbach  $\alpha$ 는 .942이었다.

### 3.2.2 자녀가치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VOC의 연구문항과 Family and Fertility Survey(FFS)문항을 추가한 권용은[20]의 자녀가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녀가치 척도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정서적 가치(8문항), 도구적 가치(7문항), 사회적 가치(3문항)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가치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87이었다. 자녀가치의 하위요인별 Cronbach  $\alpha$ 는 도구적 가치가 .890, 정서적 가치는 .837, 사회적 가치는 .640이었다.

### 3.2.3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숙[42]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한 강지수[11]의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낮았던 하위요인인 ‘일관성 있는 규제’(Cronbach's  $\alpha$  = .56)를 제외하고 46문항을 사용한 조성희[40]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  $\alpha$ 는 .91이었다.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은 합리적인 지도(9문항), 애정(9문항), 권위주의적 통제(8문항), 과보호(9문항), 성취(6문항), 적극적인 참여(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태도를 많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양육태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872이었다.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Cronbach  $\alpha$ 는 합리적인 지도가 .822, 애정이 .865, 권위주의적 통제가 .755, 과보호가 .757, 성취가 .657, 적극적인 참여가 .780이었다.

### 3.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2015년 9~10월 설문지 문항을 구성한 후 2015년 11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4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연구 협조를 의뢰하여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어 어머니가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한 설문지는 다시 유아를 통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 회수한 후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 3.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호종속관계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간접효과를 추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용이한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경로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 4. 분석결과 및 해석

### 4.1 확인적 요인분석 및 측정모델분석

각 연구단위별 단일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을 제거하지 않은 분석결과인 최초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적합도(model fit) 검증결과로 나타났지만,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이 낮은 수치를 보이는 문항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잔차(residual)값에서 문항들 간에 높은 수치(기준값 3.84)를 많이 보이는 문항을 제거함으로써 적합도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에 최종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수용가능한 적합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원가족 건강성은 최초 16문항에서 3문항 삭제한 13문항, 자녀가치는 최초 18문항에서 6문항 삭제한 12문항, 양육태도는 최초 46문항에서 21문항 삭제한 25문항이 남았다.

이렇게 남은 문항들은 가지고 측정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제안모델의 가설 검정을 파악하기 전에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지표들이 단일 요인모델에 의해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보이는가를 조사하기 위함이며, 타당성의 가장 엄격한 평가방법인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

성 역시 평가하기 위함이다. 측정모델의 변수투입은 자녀가치, 양육태도 변수의 경우에는 하위요인들을 항목합산(item parceling)을 통해 측정변수로 투입하였고, 원가족 건강성은 문항을 측정변수로 투입하여 최초 22개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측정모델 분석결과, 최초 모델에서 적합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3개의 변수를 추가로 삭제하여 최종 19개 측정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적합도는 매우 우수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적합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hi^2=291.826$ ,  $df=150$   $p=.000$ ,  $GFI=.892$ ,  $AGFI=.863$ ,  $CFI=.940$ ,  $IFI=.940$ ,  $RMSEA=.062$ 으로 밝혀졌다. 또한 측정모델의 사용된 변수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값은 모든 변수들에서 0.5이상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조사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모든 값들은 일반적 기준(개념신뢰도 0.7이상, AVE 0.5이상)을 충족시켜 집중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43].

#### 4.2 상관관계분석결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이용하였다. AVE값을 가지고 판별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변수 간 모든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AVE값보다 낮으면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한다[44]. Table 4의 상관관계분석결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이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간의 0.364이다. 이를 제곱하면 0.132로 모든 AVE값이 이 값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은 확보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s	The number of questions to analyze		$\chi^2$	df	p	RMR	GFI	AGFI	CFI	IFI	RMSEA
1	before analysis	16	343.809	104	.000	.042	.837	.787	.900	.901	.097
	after analysis	13	159.947	65	.000	.032	.907	.870	.949	.949	.077
2	before analysis	18	519.138	132	.000	.155	.798	.738	.824	.826	.109
	after analysis	12	103.227	51	.000	.056	.937	.903	.966	.966	.065
3	before analysis	46	2047.070	974	.000	.062	.732	.702	.745	.749	.067
	after analysis	25	406.427	260	.000	.036	.889	.861	.937	.938	.048

1:Family-of-origin experiences, 2:Value of children, 3:Parenting attitude

Table 3. Goodness-of-fit of measurement model

Latent Variables	Observed Variables	Estimate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Construct Reliability	AVE				
Family-of-origin experiences	experiences 33	1.000	.717	-	.463	0.945	0.574				
	experiences 29	1.068	.838	.083	.238						
	experiences 24	1.011	.737	.089	.422						
	experiences 23	.861	.709	.079	.361						
	experiences 22	1.020	.762	.087	.369						
	experiences 21	.922	.732	.082	.362						
	experiences 18	1.052	.803	.085	.300						
	experiences 17	1.089	.816	.087	.293						
	experiences 16	.815	.605	.088	.564						
	experiences 14	.985	.746	.086	.379						
	experiences 12	.869	.698	.081	.391						
	experiences 11	.860	.665	.084	.457						
experiences 2	.637	.545	.076	.472							
Value of children	emotional value of children	1.000	.663	-	.290	0.903	0.828				
	social value of children	1.535	.995	.112	.005						
Parenting attitude	Reasoning Guidance	1.000	.706	-	.103	0.904	0.709				
	Affetion	1.425	.859	.141	.073						
	Authoritarian Control	1.214	.614	.143	.249						
	Achieve Involvement	1.256	.555	.163	.361						
Goodness-of-fit of measurement model		$\chi^2=291.826$ , $df=150$ $p=.000$ , $GFI=.892$ , $AGFI=.863$ , $CFI=.940$ , $IFI=.940$ , $RMSEA=.062$									

용하는 모든 변인들의 AVE값은 0.132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s	1	2	3
1	1.00		
2	.288**	1.00	
3	.300**	.364**	1.00

1:Family-of-origin experiences, 2:Value of children, 3:Parenting attitude  
\*p<0.05, \*\*p<0.01,

### 4.3 인과관계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적합도 검증결과 보면,  $\chi^2=291.826$ ,  $df=150$ ,  $p=.000$ ,  $GFI=.892$ ,  $AGFI=.863$ ,  $CFI=.940$ ,  $IFI=.940$ ,  $RMSEA=.062$ 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적합도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검증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총 4개의 가설이 모두 채택되었으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가족 경험이 자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의 검증결과,  $t=3.531$ ( $p=.000$ )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는 원가족 경험인 건강성이 높으면 자녀가치 역시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녀가치가 양육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의 검증결과,  $t=2.544$ ( $p=.011$ )로 역시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2도 채택되었다. 이는 자녀가치가 높으면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의 검증결과,  $t=3.632$ ( $p=.000$ )로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3도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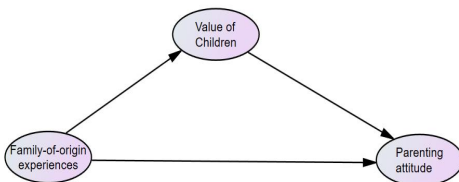


Fig 1. The final structural equation model

Table 5. Analysis Results of Estimate Model

Path	Estimate	S.E	C.R.	p
Family-of-origin experiences ➡ Value of children	.164	.046	3.531	.000*
Value of children ➡ Parenting attitude	.121	.048	2.544	.011*
Family-of-origin experiences ➡ Parenting attitude	.124	.034	3.632	.000**
Model Fit	$\chi^2=291.826$ , $df=150$ , $p=.000$ , $GFI=.892$ , $AGFI=.863$ , $CFI=.940$ , $IFI=.940$ , $RMSEA=.062$			

\*p<0.05, \*\*p<0.01.

### 4.4 매개효과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정은 건강성과 자녀가치 간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값과 표준오차값 그리고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값과 표준오차값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분석결과, z값이 절대치 1.96이상이므로 나타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한다.

매개효과 분석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원가족 경험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4의 검증결과,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z=2.058$ ,  $p=.05$ ). 즉, 원가족 경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긍정적 자녀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 자녀가치는 자녀 양육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sobel-test

Path	B	S.E	z	p
family-of-origin experiences ➡ value of children	.164	.046	2.058	.05*
value of children ➡ parenting attitude	.121	.048		

\*p<0.05, \*\*p<0.01,

## 5.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가치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가치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가설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은 자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원가족 부모와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정미라 외[2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원가족 경험은 자녀가치와 정적 상관을 이루고 있으며, 어머니의 경우 원가족 아버지보다 원가족 어머니와의 경험이 자녀가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30]. 이는 원가족 어머니의 자녀가치와 양육태도가 세대 간 전이되어 어머니의 자녀가치 형성과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원가족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어머니는 자신을 가치로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자녀에 대해서도 높은 가치를 갖게 된다[45].

둘째,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양육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자녀가치를 낮게 인식할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져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녀가치와 양육태도를 연구한 또 다른 선행연구들은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여 보다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46], 높은 자녀가치를 가진 어머니는 개인의 안위보다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더 깊게 인식한다고 하였다[19]. 연은모와 최희식[47] 역시 자녀가치 중 정서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은 양육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신의 원가족 경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 원가족 경험을 낮게 인식할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주혜[48]는 어머니가 자신의 원가족 경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자녀에 대해 더욱 친밀하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송수진[49] 역시 어머니가 원가족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원가족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거부적이거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현진과 박성연[50]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원가족 경험과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원가족 부모, 특히 원가족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고광숙[51]의 연구에서도 권위적이거나 통제적인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를 경험한 어머니는 자녀 양육에 있어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가족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적이고 거부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어머니 역시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자녀가치는 원가족 경험과 양육태도 간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다. Sobel 검정결과 원가족 경험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치는 매개효과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z=2.058, p=.05$ ). 즉, 원가족 경험이 높으면 자녀가치 역시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진 자녀가치는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원가족 경험이 세대 간 전이되고 있으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 양육태도의 상관과 인과적 관계를 밝혔다. 더불어 원가족 경험으로부터 생성되는 어머니의 자녀가치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원가족 경험이 개인에게 가치로 내재화되어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였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원가족 양육경험은 자녀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자녀가치를 결정짓는다. 경험은 과거의 일이다. 현재 양육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인 자녀가치가 자신의 지난간 과거 속에서의 원가족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므로 현재의 양육태도에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실존을 변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52]. 과거는 변화할 수 없지만 과거의 경험은 그것은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재조직될 수 있다. 따라서 원가족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머니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통하여 자신의 원가족 경험을 재해석하고 자신이 내면화한 자녀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시대의 변화는 자녀양육에 있어 어머니만의 양육이 아닌 공동양육이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과 양육태도, 자녀가치만을 살펴보았으나 차후 공동양육자로서 아버지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부부간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를 고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의 역동이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의미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경기도 지역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적인 제한점이 있으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 양육태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들이 자신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가치, 양육태도에 대하여 자기보고형태로 응답하였기에 편견으로 인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편견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의 자녀가치와 양육태도를 보고하는 형태로 응답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O. K. Yung. (2000).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oncepts of Fami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6, 69-99.
- [2] J. Park & Y. Kwon. (2009). Parental goals and parenting practices of upper-middle-class Korean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7(1), 58-75.
- [3] M. S. Kim(2015).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hildren's Valu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84, 1-8.
- [4] U. C. Kim, Y. S. Park & Y. E. Kwon. (2005). Intergenerational analysis of family values among Korean mothers: With specific focus on values of children, socialization attitudes, and support of elderly par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1(1), 109-142.
- [5] M. R. Chung & S. K. Kang. (2013). The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Parents' Experiences in their Family-of-origin,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Expect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8(2), 177-202.
- [6] S. E. Kang & J. R. Lee. (2017).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licopter Parenting Scale for an expanded age range of young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2(2), 3-25.
- [7] Y. W. Lee, J. H. Kim, S. Y. Yim, M. O. Chae, H. R. Lee & J. N. Oh. (2014). An Evolutionary Concept Analysis of Helicopter Parenting. *Child Health Nurs Res*, 20(4), 237-246.
- [8] L. E. Berk. (2005). *Child development*. 7/e. Addison-Wesley.
- [9] S. H. Moon. (2013). Structural Modeling of an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1(6), 11-21.
- [10] M. J. Kang. (2013).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stress on infant's emotional development*. Master's thesis. Pai Chai University, Daejeon.
- [11] J. S. Kang.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 [12] S. Y. Yoon & Hye-Sook Jung. (2010).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Fostering Behavior by their Parents on Young Children's Self-esteem.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4(5), 27-54.
- [13] K. J. Lee.(2011). *The Impacts of Parenting Attitude and Student'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University. Jeonju.
- [14] A. J. Hovestadt, W. T. Anderson, F. A. Piercy, S. W. Cochran & M. Fine. (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15] M. J. Chung & N. K. Choi. (2004). Level of Parental Differentiation from Family of Origin: Relationship to Child-Rearing Behavior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25(3), 87-99.
- [16] J. S. Wohn. (1990). *An Empirical study on transition to parenthoo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 Seoul.
- [17] M. K. Kwon. (2011). Parenting Stress and Related Factors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2), 19-41.
- [18] J. M. Kim & J. W. Han. (2016).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in Childhood: Analysis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2), 437-445.
- [19] K. E. Jahng & H. J. Lim. (2015). A study on the predictors of parenting responsibility of mothers with inf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5(2), 49-71.
- [20] Y. E. Kwon. (2003).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Value of Children across Three generations: Comparative Analysis Adolescents, Mothers, and Grand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21] Y. I. Kwon. (2011). A study on how a mother's parenting behaviors is affected by her childhood experience.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2), 85-96.
- [22] J. S. Lee & M. J. Chung. (2007). Children's Perception of their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in Relation to the Mothers' Childhood Experiences, Satisfaction as a Parent and Spousal Support in Parenting.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5), 85-94.
- [23] J. H. Jeon. (2009). Influence of Parents' Family-of-Origin Experience on Parenting Efficacy and Behavior-Focusing on Parents with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24] M. R. Chung, S. K. Kang & E. J. Choi. (2013). The Effect of Parent's Family-of-Origin Experience and Life Satisfaction on Value of Children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 193-215.
- [25] J. M. Lewis & M. T. Owen. (1995). Stability and change in family-of-origin recollections over the first four years of parenthood. *Family Process*, 34(4), 455-469.
- [26] S. H. Kwahk & S. O. Kim. (2006). Path Model Analysis of the Maternal Childhood Attachment, Emotion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6), 95-116.
- [27] M. K. Chung & Y. H. Kim. (2003). Maternal Parenting Experience, Depression, Marital Conflict, & Parenting Behavior Predicting School Children's Mal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1(8), 123-137.
- [28] S. H. Lee, I. S. Koh & J. S. Shim. (2009). The Study of Parent's and Grand Parents' Parenting Style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111-134.
- [29] H. S. Lee. (2001). *The Effect of Childhood Attachment on Parent's Caring Behavior*. Master's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30] M. R. Chung, S. K. Kang & J. H. Choi. (2014).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Experience on the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Role Expecta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4), 245-268.
- [31] M. R. Chung & S. K. Kang(2013). The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Parents' Experience in their Family-of-origin, Value of Children, and Parenting Expectation. 8(2).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177-202.
- [32] H. M. Choi. (1997). *A Study of the Family-of-Origin Scale with a Sample of Couples in their Early Marriag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33] J. H. Oh.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2), 509-532.
- [34] S. W. Jang, H. J. Chung & J. Y. Lee. (2011).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9(1), 71-82.
- [35] J. H. Jeon, J. Y. Park, Y. H. Kim, Y. E. Chang & S. Y. Auh. (2010). Influence of Parents'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Parenting Behaviors : Focusing on Parents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2), 1-15.
- [36] Y. M. Won(2000). *The Relations between Attitude of Child Rearing, Marital Satisfaction of Parents, Decision Making Styles in Home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 [37] G. B. Parker, E. A. Barrett & I. B. Hickie(1992). From Nurture to Network: examining links between perception of parenting received in childhood and social bonds in adulthood.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7). 877-885.
- [38] B. H. Cho, J. S. Lee, H. S. Lee & H. K. Kwon(1999). Dimensions and Assessment of Korean Parenting Styl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0). 123-133.
- [39] S. H. Rhee & H. S. Doh(201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arenting Behavior Scale for Parents of

- Early School-Age Children. *Korean J. of Child Studies*, 35(6), 111-133.
- [40] S. H. Cho(2011). *Inquiry into Parenting Experience Based on Bowen's Concept of Self-Differentiation*.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41] Y. E. Kwon & U. C. Kim. (2004). Value of Children and Fertilit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13(1), 211-226.
- [42] S. Lee. (1991).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9(1), 189-201.
- [43] J. F. Hair, Jr, R. E. Anderson, R. L. Tatham, , &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 [44] C. Fomell & D. F.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 [45] C. S. Ryu, S. N. Choi & Y. K. Choi. (2013). The Effects of Mother's Attitude by Infants' Temperament and Infants Development and Mother's self-esteem. *The Korea Society for Children's Media*, 12(3), 177-196.
- [46] Y. J. Song, M. R. Lee & H. Y. Chun. (2014). Parenting Stress Changes in Both of Continuous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fter the Birth of Their First Child : A Focus on the Effects of the Values, Knowledge and Expectations about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5(5), 15-35.
- [47] E. M. Yeon & H. S. Choi. (2015). Actor and Partner Effect of Infant-Parent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0, 79-109.
- [48] J. H. Jeon & J. Y.Park. (2010), Actor and Partner Effect of Infant-Parent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4). 127-150.
- [49] S. J. Song. (2014).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Marital Satisfaction on Parenting Behavior among Mothers of Preschool-Aged Childre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50] H. J. Jeon & S. Y. Park. (1999). Childhood Experience,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Relationship to Parent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0(3), 153-169.
- [51] K. S. Ko (2011). *The impact of nurturing attitude of a mother's parent in the family of origin on the mother's self-concept and nurturing attitude*.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Seoul.

- [52] V. E. Frank. (2005). *The will to Meaning: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of Logotherapy*. A translation by Seehyung Lee, Gyeonggi:Chunga.

신 건 호(Keon-Ho Shin)

[정회원]



- 1981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84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1988년 8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88년 3월 ~ 현재 :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발달, 인간관계
- E-Mail : khshin@kangnam.ac.kr

심 혜 숙(Hye-Sook Shim)

[정회원]



- 2008년 2월 : 강남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교육학 석사)
- 2016년 8월 : 강남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관심분야 : 유아교육, 인간관계
- E-Mail : heasuk1024@hanmail.net